

한국기업의 중국투자 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vestment of Korean Enterprises in China

박태석(Tae-Suk Park)

경북과학기술대학교 노인요양재활과 교수

김희준(Hee-Jun Kim)

경북외국어대학교 국제경영·관광학부 교수

목 차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중국의 투자환경 | 참고문헌 |
| III. 한국기업의 대 중국투자 실태 | Abstract |
| IV. 문제점 및 시사점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inese investment environment and analyze the actual investment condition of Korean enterprises in China and examine the points at issue.

In general, the investment environment in China shows satisfactory progress. China has a multiple and regional extension policy in investment. And the environment for investment changes to insufficiency of company profit, extension of service market, maintenance of legislative system, and insufficiency of preference about foreign company. There are situations of inclining to manufacturing, inclining of region, preference of independence investment, small-sized investment by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ifficulty of financial assistance, excess of logistic cost, delay of logistic term, difficulty of settlement of legal dispute and difficulty of taking a relative information in investment of Korean enterprise in China.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mostly that the investment of Korean enterprise into China needs turnover of service trade-tertiary industry, portfolio of investment territory, cooperation with Chinese enterprise through joint venture investment and a large-scale investment for extension of Chinese domestic market.

Key Words : Investment Environment, Actual Investment Condition, Korean enterpris

I. 서론

21세기 세계경제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이다. 중국은 인구 약 13억 1,526만 명(2006년 기준)의 거대시장이며 GDP는 2006년 기준 20조 9,407억 위안으로 2005년 대비 10.7% 증가율을 보이며 1978년부터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이래 연평균 9%대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하고 있다.¹⁾

또한 중국은 긴축정책의 기조유지, 고유가 지속, 경기과열 등의 논란 속에서도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구조조정 등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인해 경제환경이 개선되었다. 부동산경기의 과열억제, 저효율 중복투자 및 환경오염관련 시설의 건설제한 등 부분적인 거시조정조치를 계속 시행하여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경제의 세계경제하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개혁개방 정책과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외자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와 거래관습, 법규 및 제도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중국에 대한 투자여건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중국의 외자유입이 급격히 늘어났다. 반면에 가공무역정책 변화, 고용환경의 악화, 환경규제의 강화, 위안화의 평가절상, 세계의 개혁, 토지 및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중국 진출기업의 경영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 제조업의 성장은 중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최근에 외국기업의 투자는 2007년 10월 말까지 중국에서 신규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62만 5천 여 개, 실제투자액은 7,499억 달러이었다. 2007년 10월 현재 신규 투자건수는 30,826건으로 동기 대비 6.78% 하락하였고, 투자실행액은 539.95억 달러로 동기대비 11.15% 증가하였다.²⁾ 신규 투자건수가 줄어드는 원인에는 저렴한 노동 인건비에 대한 경쟁우위의 감소, 제3국으로 공장이전의 증가, 중국 제조업의 자체 경쟁력 강화로 동종 외자기업의 사업 진출의 공간 축소, 중국정부의 선별적인 외자유치 정책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로 1992년 한중 수교 후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천연 자원은 한국기업에게는 중요한 직접투자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의 전체적인 해외투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성장전망이 높은 중국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여 한국과 중국의 교역 규모는 2006년 기준으로 1,180억 달러로 증가하고 2007년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52억 3,113만 달러로 국가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³⁾ 중국의 한국투자는 2007년 기준 투자건수 671건에 투자금약은 9억 49백만 달러에 이르고 있어⁴⁾ 향후 해외투자 부문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교역 대상이다.

1) 중국국가통계국, 2007

2) 중국 상무부, 2008

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2008(<http://www.koreaexim.go.kr>)

4) 중국 상무부, 2008

한중 양국이 문화에 대한 동질성은 크지만 양국은 정치적 환경, 법규 및 문화적 환경 및 경제적 환경이 다르고 경제 발전단계도 다르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투자와 경영전략도 중국의 현지 상황에 맞게 추진되어야 비로소 기대한 성과를 획득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중국의 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투자환경을 알아보고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여 투자에서 오는 문제점과 시사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중국의 투자환경

중국의 투자환경은 중국정부의 외환관리시스템, 외자기업 세수제도, 세관 관세규정 등의 정비로 인해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다만 업무 집행 단계에서 신중성이 부족하고 정책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진출 확대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은 지역별로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투자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확대와 변화에 대한 투자환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역별 투자확대 정책

중국은 1980년대부터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적극적인 다원화 정책을 취하였다. 특히 1996년에서부터 2000년까지 이어졌던 제9차 5개년 계획기간 중에는 동북지구, 환발해지구, 장강삼각주, 연해경제구, 중부지구, 동남연해지구, 서남지구 및 서북지구 등 7개 지역으로 나누어 경제개발을 추진한 바 있다.

1996년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전체회의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행정구역에 대한 경계선을 없애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을 7대 경제구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적합한 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결정하였으며, 산업의 확일화와 중복투자는 방지하고 동부지역과 중서부지역의 우위성을 감안한 산업정책을 추진하였다.

1999년 11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00년 주요사업으로 서부지역 대개발 계획을 공식적으로 확정하고 2000년 1월 하순 국무원 서부지역 개발팀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개발에 대한 기본방침을 정하였다.

중국의 서부란 섬서, 감숙, 청해, 영하, 신강, 서장, 운남, 귀주, 사천, 중경, 광서, 내몽고 등의 지역을 말한다. 중국정부의 서부대개발 계획은 양개대국론⁵⁾에서 출발한다. 즉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서부 지역의 대대적인 개발 계획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의 발전 정책이 불균형적인 발전 전략으로부터 지역 간

5) 양개대국론(兩個大局論)이란 덩소평이 1979년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것으로 1990년대에는 동부 연해지역의 유리한 요소를 활용하여 우선 개발하고, 2000년 이후에는 동부 연해지역의 발전을 중서부 지역의 개발에 활용하여 공동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협조 발전과 전방위 개발로 바뀌었음을 뜻한다.

중국은 20여 년 동안 대외개방 정책을 통해 동남연해 지방을 상당한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여기에서 서부지역에 기본적인 경제 기반을 갖출 수 있다면 중국경제의 당면과제인 경제의 구조조정, 지역경제의 발전, 내수경기의 부양, 민족통합 및 사회안정이라는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서부지역 개발은 중국정부의 중장기 발전의 핵심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부대개발의 기본계획은 인프라를 구축한 후 산업구조를 조정하여 과학기술과 교육을 발전시키고 인력을 양성뿐만 아니라 투자를 위한 대외개방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서부지역은 총 면적이 540만km²로 전국의 56%에 해당되며 인구는 2.85억으로 전체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천연자원 매장량은 전체의 68%에 이르고 있으며 에너지, 관광자원 등에서 타 지역에 비해 우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홍보자료에는 서부지역의 풍부한 자원인 양모, 과일, 중약재, 석재 등을 이용하여 현지 가공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서부개발을 위한 외국기업들의 투자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공업과 과학기술역량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이 가능하고 풍부한 관광자원으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망이 좋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2. 중국 투자의 환경변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성장의 방식이 변하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이 과열됨에 따라 긴축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운용의 정책기조가 양적 고도성장에서 질적 안정성장으로 바뀌고 있다. 2008년 3월 15일에 개최된 제17차 전당대회에서 종합적인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창조력을 키우는 것을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해 첨단기술과 정보산업·생물·신소재·우주항공·해양산업의 수준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도 지난 1978년 이래 약 30년간 해온 것처럼 개혁·개방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후 총서기는 그러나 과거보다 분배를 좀 더 중시하는 ‘허세(和諧)사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과학적 발전관’을 강조함으로써 경제의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에 더 치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경제 성장률은 2004년 9.5%, 2005년 9.8%, 2006년 10.7%로 상승하고 있으나 2007년과 2008년에는 거시경제조정 및 국제시장 수요감소 등으로 인해 각각 10%와 9.8%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⁶⁾

위안화 평가절상에 따른 환율 위험도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2006년 7월 21일 위안화를 종전 달러당 8.2765 위안에서 8.11 위안으로 2.1%로 평가절상하고 복수통화 바스켓⁷⁾에 기초한 관리변동 환율제도의 도입을 발표하였다. 위안화는 향후 추가적인 환율변동 가능성 속에 점진적인 강세가 진행될 전망이며 환율구조 조정에 따른 과도기 국면이라고 볼 때 투자기업의 환위험의 노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6) 아시아개발은행, 2007년 아시아 발전전망, 2007

7) 복수통화바스켓제도란 자국과 교역비중이 큰 복수국가의 통화를 선택하여 통화군(basket)을 구성하고, 동 바스켓을 구성하는 통화들의 가치가 변동할 경우 각각 교역가중치에 따라 자국통화의 환율에 이를 반영하는 환율제도로 복수통화 연동제도라고 하기도 한다.

중국 국내시장의 경쟁 심화로 기업이윤이 줄어들고 있다. 2005년 상반기 현재 600개 주요 상품의 73.2%인 439개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였으며 공산품은 공급초과 비율이 83%로 만성적인 공급과잉 구조에 놓여 있다. 앞으로 단기간 내 공급보다는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 획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많지 않으며 중국의 시장개방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진출과 사기업의 증가로 중국 국내시장의 기업 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외자유치국으로 부상했다. 특히 세계 500 대 기업 중 450개 사가 중국 내 생산체제를 구축할 정도로 중국 진출이 확대되고 있어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전 및 IT 분야의 중국 기업들도 유통 채널에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최근 핵심기술 확보, 품질제고, 브랜드 이미지 강화 등 비가격 요소에 주력하고 있다.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에너지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생산구조도 고비용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 경제의 급성장으로 중국의 석유수입량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원부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생산에 필요한 전력도 부족상태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화남지역을 중심으로 인력난과 임금상승 압력이 크고 토지개발 제한으로 인한 지가상승 등으로 인해 중국 내 기업의 생산구조는 저비용 구조에서 고비용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법제 시스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2,300여 개의 법령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였으며 2005년에는 각종 법령을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허가법을 발표하였다. 법제시스템의 정비로 투자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나 기업의 준법경영이 강조되고 있다.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노조설립 요구, 제품인증, 소비자 보호 등의 각종 법규준수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서비스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시장 개방계획에 따라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있어 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앞으로 중국의 외자유치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지분 및 규모에 대한 일부 제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자본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가 점차 감소되고 있다. 중국은 WTO에 가입 이후 국내기업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설득력있는 논리를 내세워 외국기업에 대한 세수혜택 등 각종 우대정책을 장기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중국정부는 내·외자 기업소득세의 통합세율을 약 25%선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유치를 고려하여 2008년 이후 통합세제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지역위주의 세수우대 정책에서 산업과 기술위주의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지역불균형발전 해소를 위하여 동부지역의 세수혜택을 줄이고 서부지역에 대한 우대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마찰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다. 중국은 2005년 일본을 넘어 세계 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경제성장에 따른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로 경쟁국과의 통상마찰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수출은 투자 및 외자유치와 함께 중국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통상마찰로 인한 수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통한 안정적 수출환경조성에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⁸⁾

Ⅲ. 한국기업의 대 중국투자 실태

1. 대중국 투자의 배경 및 동기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지속된 무역수지의 흑자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한국 국내시장의 노동 인건비 상승, 생산비용의 증가, 대한 수입규제 강화와 시장개방 압력 등 한국의 내외투자 여건이 변화하면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증가하였다.

1992년 한중양국 수교 후 무역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등 해외투자와 관련된 정부 간 쌍무협정을 체결하였고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 관한 제도장치가 확보되었다. 중국의 지리적 인접성, 거대한 잠재적 시장, 문화적 유사성, 양국경제의 상호보완성 및 노동력 활용의 용이성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투자를 촉진시켰다.

한편 중국의 안정적인 경제발전,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13억 인구를 가진 거대한 시장규모 및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소비자 구매력 등의 요소들이 해외기업에게 큰 매력이다.

투자를 통해 해외로 진출한 한국기업은 관세문제 극복, 현지화 전략 가능, 생산비용의 감소 등의 유리한 점도 있으나, 지리적 환경, 의사소통의 문제, 문화와 상관습의 차이, 외국기업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 정책 등을 극복해야 한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를 통해 현지국 시장에서 경쟁한다는 사실은 현지국의 기업들보다 가격 및 품질에 대한 경쟁우위 요소를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할 자신이 있다는 의미이다.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의 특징으로는 업종 면에서는 제조업 중심, 규모면에서는 소규모 투자, 지역 면에서는 환발해 지역 집중, 투자형태는 단독투자를 선호하는 점이다.

투자의 유형으로는 한국의 자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원유, 광업, 산림업, 수산업 등의 자원을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투자, 노동 인건비용의 상승 등에 따른 원가 상승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투자, 현지국의 시장 또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경우 기존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 대중국 투자 현황

1) 연도별 투자현황

중국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는 1988년에 시작되었으며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하였다. 짧은 수교 기간에 비하여 무역과 투자는 급속히 확대되었다.

1996년에 9억 3,347만 달러, 2,138건으로 증가하다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7년 7억 5,316만 달러로, 1999년에는 3억 5,166만 달러로 최저점을 지나 2000년 7억 2,151만 달러, 2001년 6억 5,012만 달러로 회복세를 보였다.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2005년에 27억 7,350만 달러, 9,533건, 2006년은 33억 4,864만 달러, 9,782건, 2007년에 52억 3,113만 달러, 9,082건으로 금액 기준 한국기업의 전체 해외 투자금액의 25.7%로 국가별 해외투자 1위를 기록하였으나⁹⁾ 2006년에 비해 투자 건수 비중은 다소 줄었으나 투자 금액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02년부터 한국의 최대 해외투자 대상으로 부상하였으며 2007년 12월 말 현재까지 한국의 대중국 투자 건수와 금액은 62,988건과 225억 5,369만 달러로 전체 해외투자 실적의 각각 50%와 24.6%를 차지하고 있다.¹⁰⁾ 모기업과 현지 투자법인 간 거래확대로 수출증가에 기여하였으나 최근 중국 내 원부자재 조달의 가능성 늘어나고 있으며 원부자재의 현지 조달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수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 예상된다.

중국상무부의 2005년 말 통계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한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 실적은 총 51.68억 달러로 한국의 통계 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몇 년간은 약 3배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투자통계의 차이는 한국 내 투자 미신고, 현물 및 기술투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실제 통계는 한국보다 중국이 더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투자 건수 기준으로 약 5만여 개의 한국기업이 설립되었으며 이 중 절반 정도는 도산 및 휴업 등으로 정산 가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기업의 성공적인 현지화와 문화적인 영향으로 중국 내 한국 투자기업에 대한 이미지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상무부가 발표한 2005년 500대 외자기업 중 한국기업은 26개사로 이들 한국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총 1,195.6억 위안에 달하며 전체 500대 외자기업 매출액의 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¹⁾

<표 1> 한국기업의 연도별 대중국 투자 현황

(단위 : 건, US\$ 천)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988	2	3,400	1	10
1989	12	9,770	7	6,360
1990	51	55,622	46	16,173

9) 2007년 한국기업의 전체 해외투자 건수 및 금액은 20,692건과 203억 5,173만 달러이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008)

10) 2007년 말까지 한국기업의 전체 해외투자 건수 및 금액은 126,212건과 917억 6,264만 달러이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008)

11)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국가정보, 중국, 2007(<http://www.kotra.or.kr>)

1991	135	84,721	130	42,466
1992	314	223,106	356	141,128
1993	752	631,265	747	264,017
1994	1,298	826,910	1,699	649,294
1995	1,271	1,281,970	1,836	841,134
1996	1,517	1,931,083	2,138	933,473
1997	1,140	915,757	1,781	753,162
1998	595	908,821	1,105	681,319
1999	852	493,856	1,276	351,657
2000	1,393	1,004,989	2,144	721,512
2001	1,743	1,019,528	3,209	650,116
2002	2,512	2,111,399	4,430	1,051,885
2003	3,102	2,864,823	5,621	1,746,626
2004	3,965	3,717,222	8,065	2,333,271
2005	4,611	3,640,672	9,533	2,773,498
2006	4,684	4,535,287	9,782	3,348,639
2007	4,549	7,180,703	9,082	5,231,133
누계	34,498	33,440,902	62,988	22,536,874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008.

2) 산업별 투자연황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2007년 투자금액 기준으로 보면 제조업이 전체 투자의 대부분인 36억 4,717만 달러로 69.7%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금융보험업이 6억 5,563만 달러, 도소매업 2억 1,242만 달러, 사업서비스업 1억 9,482만 달러, 건설업 1억 6,412만 달러의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건수 면에서도 제조업이 6,679건으로 73.5%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편중되어 있고, 그 뒤를 이어 도소매업 및 사업서비스업이 각각 864건, 322건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운송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업종의 투자액이 증가하였다. 특히 금융보험업 투자가 2007년에 급격히 증가하였고 최근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한 생계형 서비스업 진출과 부동산 투자 등 개인투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표 2〉 최근 3년 간 한국기업의 산업별 대중국 투자 현황

(단위 : 건, US\$ 천)

업종	2005		2006		2007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림 및 임업	148	9,059	147	12,265	128	19,370
어업	15	1,002	7	812	5	468
광업	22	14,008	48	19,930	34	32,320
제조업	7,535	2,237,469	7,480	2,731,251	6,679	3,647,170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3	280	7	10,209	13	6,054
건설업	138	62,310	215	72,831	142	164,115
도소매업	611	174,460	820	220,731	864	212,418
숙박 및 음식점업	255	25,082	250	23,587	293	28,252
운수업	44	27,393	45	11,081	88	49,799
통신업	13	541	13	899	15	6,018
금융보험업	8	93,720	1	15,000	25	655,625
부동산 및 임대업	202	51,273	138	91,571	138	142,512
사업서비스업	254	31,415	292	62,572	322	194,816
교육서비스업	31	2,376	30	1,779	39	2,16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8	4,214	13	1,530	6	43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30	18,301	177	66,167	181	55,779
기타 공공, 수리 및 서비스업	95	5,747	97	6,414	110	13,822
국제 및 외국기관	1	14,84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2	11		
누계	9,533	2,773,498	9,782	3,348,639	9,082	5,231,133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008.

제조업종 중에서는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가 최근 3년 간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2007년에도 14억 5,175만 달러(39.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자동차 및 트레일러 3억 9,550만 달러(10.8%), 기타운송장비 2억 7,631만 달러(7.6%), 기타기계 및 장비 2억2,379만 달러(6.1%)의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건수로는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가 1,170건(17.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타기계 및 장비 687건(10.3%), 자동차 및 트레일러 547건(8.2%)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전, 통신, 기계, 자동차,

유통, 금융 등 내수시장 진출형 투자비중이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규모별 투자건수는 중소기업이 많으나, 투자금액은 2005년, 2006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비슷하고 2007년은 대기업의 투자금액이 중소기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최근 3년 간 한국기업의 제조업종별 대중국 투자 현황

(단위 : 건, US\$ 천)

제조업종	2005		2006		2007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음식료품	475	140,745	306	129,351	325	98,293
섬유제품	399	89,656	495	84,038	395	131,346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1,043	149,017	740	100,410	536	87,142
가죽, 가방 및 신발	118	46,632	238	28,766	199	32,151
목재 및 나무제품	84	7,479	116	12,013	95	9,11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53	6,197	80	6,659	105	10,213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5	8,106	52	4,985	35	7,374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2	150	8	23,886	10	13,391
화합물 및 화학제품	499	132,017	385	201,345	367	204,22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137	70,280	268	69,970	305	129,951
비금속광물제품	151	102,605	190	136,510	149	48,666
제1차금속산업	201	229,874	196	99,022	188	156,481
조립금속제품	385	84,277	381	139,282	424	213,754
기타기계 및 장비	616	105,882	675	96,028	687	223,794
컴퓨터 및 사무용품기기	66	23,334	63	17,651	78	18,162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199	38,565	230	43,573	263	53,277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221	458,388	1,243	940,986	1,170	1,451,75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257	32,579	244	51,340	187	48,792
자동차 및 트레일러	609	358,855	608	322,996	547	395,495
기타 운송장비	65	72,349	91	157,505	142	276,305
가구 및 기타제품	910	80,481	791	64,935	468	36,580
재생용가공원료생산업					4	910
누계	7,535	2,237,469	7,480	2,731,251	1,517	3,647,17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008.

<표 4> 최근 3년 간 한국기업의 기업규모별 대중국 투자 현황

(단위 : 건, US\$ 천)

주 투자자 규모	2005		2006		2007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대기업	554	1,427,962	448	1,847,643	470	3,428,004
중소기업	4,976	1,095,865	5,007	1,206,412	4,759	1,506,077
개인기업	1,358	81,007	1,387	77,264	1,028	73,936
개인	2,638	167,963	2,940	217,320	2,824	223,016
기타(비영리단체 등)	7	702			1	100
누계	9,533	2,773,498	9,782	3,319,751	9,082	5,231,133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008

3) 지역별 투자현황

2007년 지역별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금액은 강소성이 15억 7,530만 달러(30.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북경시 10억 2,049만 달러(19.5%), 산둥성 8억 2,247만 달러(15.7%), 요녕성 4억 7,989만 달러(9.2%), 천진시 2억 9,415만 달러(5.6%), 상해시 2억 6,990만 달러(5.2%)의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건수 산둥성이 3,781건(41.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강소성 1,127건(12.4%), 요녕성 865건(9.5%), 천진시 648건(7.1%), 북경시 587건 (6.5%)의 순으로 나타났다.

화동지역의 개방확대와 경제성장 등 사업 환경개선 요인에 따라 2002년 이후에는 강소성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2007년에 강소성은 한국기업의 1위 수출지역으로 부상하는 등 화동지역과의 교역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투자증가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역별 투자규모 및 투자업종의 차이가 뚜렷하다. 산둥성, 요녕성, 길림성에 대한 투자는 소규모 투자가 많으며 강소성, 북경시, 상해시, 절강성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많다. 3위 투자대상지역인 산둥성은 경공업과 가공무역의 투자가 많고 건당 투자규모가 100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투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북경시, 강소성, 상해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진출업종도 비교적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전자, 전기, 화공 등의 업종이 많고 건당 투자규모도 200만 달러 전후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표 5〉 최근 2년 간 한국기업의 지역별 대중국 투자 현황

(단위 : 건, US\$ 천)

지역	2006		2007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강소성	1,172	1,069,134	1,127	1,575,296
북경시	676	268,973	587	1,020,493
산둥성	4,418	826,940	3,781	822,466
요녕성	806	185,036	865	479,894
천진시	712	291,163	648	294,149
상해시	601	219,508	712	269,895
광둥성	318	125,850	299	200,841
산서성	5	2,618	14	38,696
절강성	294	81,216	293	130,747
하북성	180	56,542	155	123,302
강서성	28	12,646	33	75,518
흑룡강성	83	14,256	85	55,551
길림성	210	21,004	195	38,304
해남성	14	5,383	15	12,276
호북성	36	10,245	49	23,778
사천성	33	10,558	36	20,700
복건성	45	12,502	37	13,054
안휘성	20	8,111	34	11,957
감숙성	12	10,245	36	10,504
자치구	51	9,289	28	3,155
호남성	12	81,802	14	2,620
하남성	12	7,622	9	3,688
운남성	12	1,803	16	1,727
섬서성	18	427	12	2,032
귀주성	5	755	2	510
청해성	6	1,298	0	0
누계	9,782	3,348,639	9,082	5,231,133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008

화북지역은 북경시를 중심으로 내수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천진지역에 대한 가공무역 투자는 감소하고 있다. 강소성, 북경시, 상해시, 천진시 절강성, 요녕성 등의 지역은 한국기업의 투자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의 지속적인 투자개방, 업종확대와 내수시장 활성화로 대중국 투자는 과거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가공생산에서 내수시장 진출로 바뀌고 있다.

4) 외국의 대중국 투자실태

중국의 외국기업의 투자는 1990년 대 이후에 빠른 성장을 지속하여 1993년 외자 최다유치국이 되었으며 2002년에는 미국을 넘어 세계 1위 투자 유치국으로 부상하였다. 2005년 한해 신규 설립된 외국기업 수는 전년대비 0.77% 증가한 44,001개에 이며 투자금액은 603.2억 달러에 이른다. 대중국 외국기업의 투자는 2005년 기준 투자방식별로 보면 단독투자가 429.61억 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합자투자 146.14억 달러, 합작투자 18.31억 달러, 외국기업 지분투자 9.18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상무부가 발표한 2006년 중국의 국가별 투자 실적을 살펴보면 1위 홍콩 202.33억 달러, 2위 버지니아 제도 112.48억 달러, 3위 일본 45.98억 달러, 4위 한국 38.95억 달러¹²⁾, 5위 미국 28.65달러, 6위 싱가포르 22.50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2006년 투자실적 상위 10위 국가의 투자금액이 전체의 83.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6년과는 달리 2007년 10월까지 투자금액을 보면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대중국 투자에 3위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고도의 경제성장과 높은 잠재력으로 전 세계 외국기업의 투자 최대 대상국가로 부상하였으나, 중국의 내수시장과 서비스시장 미 개방으로 인해 제조업 위주의 투자가 절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외국기업의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은 제조업 자체의 서비스를 목적으로 제조업과 동반하여 진출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서비스시장 개방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제조업 투자비중은 줄어들고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업종별 외국기업의 대중국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투자금액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3%로 전년 대비 점유율이 9.0%로 하락하였고 서비스업은 전년 대비 58.2% 성장하여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초과하였다.¹³⁾

12) 국가기준으로는 1위임

13)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국가정보, 중국. 2008(<http://www.kotra.or.kr>)

〈표 6〉 최근 2년 간 대 중국 외국인 투자 현황

(단위 : 억불)

순위	2006			2007(1-10월)		
	국가 명	건수	실행액	국가 명	건수	실행액
1	홍콩	15,496	202.33	홍콩	12,948	186.55
2	버지니아 제도	2,605	112.48	버지니아 제도	1,562	129.14
3	일본	2,590	45.98	한국	2,865	29.45
4	한국	4,262	38.95	일본	1,620	28.10
5	미국	3,205	28.65	싱가포르	878	22.45
6	싱가포르	1,189	22.60	미국	2,143	19.87
7	대만	3,752	21.36	케이만 제도	277	17.88
8	케이만 제도	414	20.95	사모아	662	14.57
9	독일	576	19.79	대만	2,685	12.94
10	사모아	806	15.38	모리셔스	198	9.07
	전체	41,473	630.21	전체	25,838	470.02

자료 : 중국상무부 외자사, 2007. 10.

IV. 문제점 및 시사점

1. 문제점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 실태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는 노동집약적인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제조업 위주의 투자가 69.7%로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전체 투자 건수의 73.5%가 제조업에 편중해 있고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제3국 수출형 제조업 투자가 많아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취약하다. 이처럼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제조업, 특히 노동집약적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생산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요인인 중국의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생산한 후 제3국 혹은 한국으로 재수출하려는 목적에 의해 투자가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자의 경공업 집중 현상은 최근의 임금 및 지가 상승과 투자우대조치 축소 등 투자환경 변화에 쉽게 취약해지는 약점이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노동집약적 경공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역수입 효과와 국내 산업의 공동

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른 경쟁국 기업들이 발 빠르게 중국에 진출함으로써 원부자재를 비롯한 중국제품의 수출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어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경쟁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둘째, 우리의 대중국 투자는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중국이 유치한 전체 외국인 투자는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기업들의 경우는 강소성과 상해를 중심으로 한 화동지방, 북경을 중심으로 한 환발해권, 청도를 중심으로 한 산동지역 등 3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 장강삼각주(상해, 강소, 절강), 환발해(북경, 천진, 산동) 및 주강삼각주(광둥)로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특정지역에 대한 투자집중 현상이 완화된다고 있으나 향후 보다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유사업종의 특정지역 집중현상은 진출기업간의 과당경쟁과 지가상승에 따른 경비부담의 과중으로 현지 경비비용의 상승과 전반적인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셋째, 우리 기업의 중국 투자는 제3국 수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가 대부분이며 합작보다는 단독 투자 형태를 선호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강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의 투자 형태와는 대조적인 특징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미국이나 일본기업은 대부분 1983년부터 1988년까지의 기간 동안 중국에 투자한 반면 한국기업은 1988년 이후부터 투자가 시작되었고, 이 당시 중국은 국제대순환론이라는 이론적 배경 하에 임가공 수출업종의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 1986년부터 단독투자 형태의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높은 단독 투자 선호 경향은 내수 시장 개척 등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경영 효율 저하를 불러올 수도 있다.

넷째,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중소기업에 의한 소규모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들에 의한 저임 노동력 활용을 위한 노동집약적 산업 투자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인한다.

세계화가 미흡한 중소기업으로서는 지리적인 근접성, 문화적 유사성과 동포의 활용이 가능한 점 등으로 중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심리적 부담이 적은데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반면에 대기업에 의한 투자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다. 그 까닭은 대기업들이 초기의 시험적 투자에서 벗어나 중국시장의 내수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투자실태에서 오는 문제점 외에 투자지원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 금융지원에 있어서 중국기업들은 중국은행으로부터 용이하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중국계 은행으로부터 여신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중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중국 물류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물류비용의 과다와 물류시간의 지연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에서 홍콩까지의 물류비용에 비해 중국의 청도까지 물류비용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⁴⁾

14) 홍콩까지의 컨테이너 수송비는 US\$400인 반면에 청도로까지는 US\$650임

중국지방정부의 정책집행의 비일관성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과 중국기업이나 개인과의 법률적 분쟁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각종 준조세, 부당한 벌금부과, 해고 등의 경영권의 간섭 등과 같은 현지에서의 충돌이 중국의 중앙정부의 규정과 배치될 경우에는 지원기관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의적인 결정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개인이나 기업 간의 법률적 분쟁은 한국기업의 중국법률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지방간의 경영환경이 다르고 개혁에 따른 제도 변화가 진행 중이어서 경영정보를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외자기업법, 대외무역법, 관세율, 노동법과 같은 각종 법률과 규정의 변화, 동북3성 개발 계획, 국유기업의 민영화 작업 등의 지역별 투자환경, 위안화 환율 문제, 유통업 개방 등의 중국 거시경제정책의 변화 등 신규투자 기업의 설립과 관련한 정보뿐만 아니라 기존기업이 직면하는 경영 환경에 대한 정보를 늘려나가야 한다.¹⁵⁾

2.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기업의 대중국투자는 제조업종에 편중되어 있으며 제조업 중에서도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기타기계 및 장비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기존의 2차 산업 위주의 대중국 진출 전략에서 탈피하여 3차 산업인 서비스무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004년 말부터 중국이 서비스 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진출에 호기가 조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에 제조기업의 중국진출이 증가하면서 중국 내수시장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유통업의 대외개방에 따른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물류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판매거점의 선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중국의 중·서부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액 중 많은 부분이 동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 정부의 서부 대개발, 동북 3성 재건, 중부지역 진흥 등 중·서부 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이런 정책기조 변화에 맞추어 종래 중소기업 위주의 제3국 수출형 투자에서 탈피하여 다원화된 투자주체에 의한 투자동기와 투자지역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단지 이들 지역은 아직 인프라 시설 등 투자환경이 다소 열악하므로 초기에 독자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기 보다는 중국기업과의 합작 등을 통한 시범적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일본의 경우, 중국투자는 중소기업을 위주로 종전 개별기업의 단독투자에서 기업 간 컨소시엄 형태의 집단투자로 전환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기업은 대중국 투자에 있어서 단독투자를 선호하며 대중국 투자기업 평균 지분비율은 76.7%이다. 이와 같은 높은 투자지분은 경영권의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중국기업의 현지 적응력 활용도의 저하 및 내수시장의 개척, 인맥활용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따라서 유통, 판매, 대관공서 업무 등 내수시장 개척을 위해 단독투자보다는 합작투자를 통한 중국 파트너와

15) 중국협력기획단, 산업자원부, 2006

의 협력 도모가 필요하다.

한국기업의 대 중국투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소규모 투자는 중국 내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율성을 가질 수 있으나 대량생산을 통한 원가우위 전략에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대규모 투자도 적극적인 필요가 있다.

급격히 증가하는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한국경제의 두 가지 측면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는 중국에 대한 투자 증가와 함께 기업 내 무역의 증가에 따라 중간재의 수출이 증가하여 아직까지는 수출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평가된다.

노동집약적 분야의 중·저급 제품이 주로 진출함으로써 설비 및 원·부자재 수출증대 효과가 있고, 이것은 대중국과의 무역수지에 영향을 준다. 다른 하나는 국내산업의 이전과 산업공동화 가능성을 야기한다. 향후 중국의 외자유치 정책에 따라 첨단산업의 투자를 선호할 경우, 한국기업은 수출 주력 업종인 전자, 자동차 등이 주 투자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업종이 투자의 중심이 된다면 핵심 기술의 유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폐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현지 밀착형 투자로 전면 현지화할 경우에는 자본재 및 원부자재가 중국 내에서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의 수출촉진 효과가 감소하게 되고, 생산기지가 중국에 정착하게 되면 국내 산업의 공동화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대중국 투자가 증가할수록 당분간은 대중국 수출은 증가할 것이다. 즉 한국기업이 생산과정에서 수직분업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에 있는 모기업에서 부품이나 소재를 조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국의 대중국의 수출구조는 앞으로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며, 투자의 중국 현지화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수출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 이유는 중국이 부품 및 소재의 국산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기업들의 기술수준이 제고되고 신규기업들이 부품이나 소재부문에 투자를 확대하면 중국의 부품과 중간재의 수입이 감소될 것이다. 또한 다국적기업들이 중국 진출이 증가하면서 중국 내수시장의 경쟁이 치열할 경우 한국기업은 경쟁압력으로 인해 부품의 현지조달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에서는 외국인 투자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국기업의 과도한 투자로 상품 공급의 과잉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외국기업의 수출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해외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외국기업이 중국시장을 독점한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국내 기업이 중국 투자를 하는데 있어 이 부분을 참고하여 적절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중국은 최근 수년간 9%의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하며 경제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인도, 러시아, 브라질과 함께 BRICs의 일원으로 향후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국가이며 인도와

함께 CHINDIA¹⁰⁾라는 용어로 세계경제 변화의 핵심 축으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 가고 있다.

지리적 근접성과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 인구 13억의 거대한 시장이라는 이점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앞 다투어 중국에 진출하였으며 1993년의 중국 시장 개방 이후 본격화된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은 아시아 지역 외환위기를 맞아 다소 위축되었으나, 1999년 이후 투자 건수나, 금액 면에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노동비용의 경쟁우위의 감소, 인도차이나 국가 등 제3국으로 공장이전의 증가, 중국 제조업의 자체 경쟁력 강화, 중국정부의 선별적인 외자유치 정책 등으로 인해 대 중국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시장은 한국기업에게는 여전히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자원으로 인해 중요한 투자 가능국가로 남아 있다.

중국의 투자환경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단지 제도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집행과정에서의 신중성 부족과 일원화되지 않은 정책장구 등으로 인해 진출 확대의 어려움이 있다.

최근에 지역별 투자확대 정책,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성장방식의 변화, 위안화 평가절상에 따른 환리스크가 확대, 시장경쟁 심화로 인한 기업이윤의 축소, 생산력 확대에 따른 에너지난의 심화와 고비용 구조 전환, 법제 시스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감소,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를 추진, 통상마찰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의 투자환경의 변화가 감지된다.

1992년 한중양국 수교 후 각종 협정을 체결과 대중국 투자에 관한 제도장치가 확보되었고 중국의 광대한 잠재적 시장과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유사성, 양국경제의 상호보완성 및 조선족 노동력 활용의 용이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요인이 투자를 촉진시켰으나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즉 제조업종에로의 편중 현상, 지역적 집중, 단독투자형태의 선호, 중소기업에 의한 소규모 투자방식, 금융지원 문제, 물류비용의 과다 및 물류시간의 지연, 법률적 분쟁의 해결, 경영정보 획득의 어려움 등이다. 따라서 3차 산업인 서비스무역으로의 전환, 진출기업 간의 과당 경쟁을 피할 수 있는 투자 지역의 다변화, 합작투자를 통한 중국 파트너와의 협력 도모, 중국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대규모 투자 등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겠다.

중국은 유통구조의 복잡성, 관계를 중시하는 상관습, 시간을 자기편으로 만들 수 있는 전략 등으로 비즈니스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기가 용이한 시장이 아니다. 향후 중국시장을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은 서두르지 않고 여유를 가진 상태에서 대중국 투자를 위한 다양한 요소들을 철저히 검토한 후, 분명한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 경제가 부상하고 있는 이때가 중국투자에 대하여 보다 많은 연구와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기업체와 관련 기관들의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9) 2003년 미국의 증권회사인 골드먼삭스 그룹의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이다. BRICs는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2030년 무렵이면 이들이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10) 21세기 세계경제를 주도해 나갈 두 나라라는 뜻으로 중국(China)과 인도(India)의 앞뒤 글자를 합성한 것으로 중국과 인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부르는 용어이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05년도 세계경제를 전망한 《2005 세계 대전망 The World in 2005》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참 고 문 헌

- 김기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영연구」, 제15권 제2호 pp207-227, 2000
- 김주영, “WTO가입 후 다국적기업의 대중국 투자전략의 변화”, 「수은세계경제」, 2003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년 상반기 중국경제 현황 및 하반기 경제전망, 2006
- 박승록, “중국의 경제성장과 외국인 투자”, 한국경제연구원, 2003
- 산업자원부, 중국협력기획단, 2006
- 조현준, 「중국유통산업의 개방과 활용전략」, 2002
- 중국경제연감편찬위원회, 중국경제연감, 2003
- 중국국가통계국, 2006
- 중국상무연감, 2004
- 중국상무부, 외자유치대장, 2005
- 지만수, “한국기업의 대중국 권역별 진출과 전략”, KIEP, 2002
- 최용록, 「해외투자론-이론과 실무」, 박영사, 2000
-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투자-법인설립과 진출사례, 2002
- _____, 국가정보, 중국, 2006
- 한국수출입은행, EU기업의 대중국 투자 평가와 시사점, 2002
- _____, 해외투자통계, 2006
- 한국무역협회, 국가통상정보, 중국포털, 2006
- _____, 2002 중국 비즈니스 실무 가이드, 2002
- Berthelemy, Jean-Claude and Demurger, Sylvie,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 Theory and Application to China”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4(2), 2000
- “Prospects of Trade and Investment in India and China,” International Studies , Vol. 39, No. 1, 2002, pp.26-27
- <http://www.mofcom.gov.cn>
- <http://www.mofe.go.kr>
- <http://www.mocie.go.kr>
- <http://www.kiep.go.kr>
- <http://www.koreaexim.go.kr>
- <http://www.kotra.or.kr>
- <http://www.kita.net>